

총선 투표 부재자 신고 기간이 마무리되어진 직후 본교 총학생회는 약 1천5백명의 학생들이 부재자 신고를 했음을 발표했다. 서울이 고학연 학생들과 직접 상에 내려가 투표할 학생들을 합치면 약 70~80% 이상은 투표를 할 것이다. 관여의 때와는 무척 다른 양상이다.

에 대해 대화, 토론하고 행동하며 사느냐는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들은 이러한 생활에 익숙해 있지 않다.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표명되어진 이러한 것이 진정한 우리의 현실임은 사실이다. 이것이 극복되어지고 대체되어질 어떤 공간도 만들어져있지 못하는데 일인 제공의 한 요인이 있다. 언론매

비판하는 장이며 크기는 어떤 정치 세력이 현실 정치권의 대안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여러 세력의 선거 운동 모습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욕구를 올바르게 풀어 나갈 수 있는 장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내 어느 곳을 보더라도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장은 그리 많지 않다.

모순이 중첩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영재야! 나 실상 우리 지구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땅히 짝을 사람들이 없거든, 하는 어떤 지구의 말이 지금의 선거권을 암묵적으로 놓는 말이 아닐까! 정치적 무관심의 극복은 투표를 포기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아닐것이다...

여러가지 기준자를 대며 학생들은 투표를 할 것이다. 도덕성, 정책성, 변혁성,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지 등등. 어쩌면 투표를 한다는 그 자체가 발전된 모습인지도 모를 일이다. 한때는 투표를 안한다는 이유 하나로 '요즘 젊은 놈들 큰일이야. 제 주권도 행사 안하는 놈들이 무슨 놈의 데모야!' 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선거를 통해 스스로의 정치적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찾아 스스로가 나서야 할 것이고 권을 통한 자기 합리화 보다는 무효표를 통한 의의표명이 차라리

나를 것이라 막연한 무념보다는 부정 선거의 장을 고발할 수 있는 용기, 건장하고 관망되어지는 후보에 대한 작은 지원(모금 운동 참여, 선거 홍보물 배포,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 등등)이 더욱 필요해진다.

며칠전 민주당의 100% 당선지 역이라고 왜곡되어진 광주시민들의 이문옥 감사관 추대는 작은 참여를 통한 정치적 경험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사례이다. 이 감사관을 추대한 약 1천명의 시민들의 행동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 '그 래도 김대중씨가 있는데'라며 무 원칙한 민주당의 공천에 물려져 자 거는 식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었던 광주시민들에게 이 사건 자체가 엄청난 변혁의 팽으로 자리매김 되어질 수 있겠다.

1천5백여명의 부재자 신고가, 1천5백여명의 작은 정치적 경험이라면 이번 총선 큰 경험인 투표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들에게 절실한 한 번이 이것이다.

많은 학생들의 선거 참여 의사 표명, 그리고 광역의회 때와 별로 달리지 않는 인물들과 선거 풍토. 특히 상변이 이모양새를 어떻게 설명 하려야 할까? 과연 학생들은 왜 투표를 하기로 마음 먹었을까? 지지할 정당도, 좋아하는 정치인도 없다는 이가 90% 이상이었다. 지난날의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나?

우리는 지난 광역의회 선거 이후 정치적 무관심의 팽배라는 말들을 무척이나 많이 들었다. 다른 식으로 '달라진 정치적 생활이 극히 불규칙하다는 말이다. 이것은 집회나 시위라는 극히 협소한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 속에서 얼마만큼 정치적인 문제

를 다룬다. 국민당처럼 돈 많은 정당은 매일 막대한 돈을 들여 정책 시리즈를 발표하고 최첨단세나 이주일씨, 강부자씨를 동원하여 사람들의 일에 아무런 회자되지 만들고는 있으나 생생한 민중들의 현실문제가 어느 세력에 의해 어떻게 극복되어져야 하는지를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 기술로 왜곡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다. 어쩌면 학생들에게 새로운 정치, 과거에 대한 단절과 민중의 변혁의지를 책임져줄 정치세력에 대한 갈망과 또한 부재자는

는지 등등. 어쩌면 투표를 한다는 그 자체가 발전된 모습인지도 모를 일이다. 한때는 투표를 안한다는 이유 하나로 '요즘 젊은 놈들 큰일이야. 제 주권도 행사 안하는 놈들이 무슨 놈의 데모야!' 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선거를 통해 스스로의 정치적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찾아 스스로가 나서야 할 것이고 권을 통한 자기 합리화 보다는 무효표를 통한 의의표명이 차라리

나를 것이라 막연한 무념보다는 부정 선거의 장을 고발할 수 있는 용기, 건장하고 관망되어지는 후보에 대한 작은 지원(모금 운동 참여, 선거 홍보물 배포,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 등등)이 더욱 필요해진다.

며칠전 민주당의 100% 당선지 역이라고 왜곡되어진 광주시민들의 이문옥 감사관 추대는 작은 참여를 통한 정치적 경험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사례이다. 이 감사관을 추대한 약 1천명의 시민들의 행동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 '그 래도 김대중씨가 있는데'라며 무 원칙한 민주당의 공천에 물려져 자 거는 식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었던 광주시민들에게 이 사건 자체가 엄청난 변혁의 팽으로 자리매김 되어질 수 있겠다.

1천5백여명의 부재자 신고가, 1천5백여명의 작은 정치적 경험이라면 이번 총선 큰 경험인 투표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들에게 절실한 한 번이 이것이다.

20~30대 이번 선거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다. '대학생 표를 잡자'.

이런 문구들은 요즘 일간지의 선거면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광역의회 선거에서 보여준 뜻밖의 (?) 저조한 투표율은 그만큼의 반대 이익을 집권 여당에게 선사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이후 젊은층의 투표 행태를 놓고 정치학자, 정치 무관심의 표현, 20-30대의 권리행사 포기 등 여러 원인이 사회 타락의 불결 문화가 만든 정신문화의 결핍에 의한 현상이라고 각계에서 분석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젊은층의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선입관은 여전히 있다. 그것에 대한 사회 전체 특히, 정치인들의 극복 방안은 전혀 강구되지 않았다.

14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적인 정부의 수립으로 가는 길목에 놓여 있다. 집권여당은 총선에서의 개헌선 내지는 다수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통탄장에게 20억원에 달하는 선물을 주고 정부가 민간단체를 이용할 목적으로 공명선거조치를 꾸며내고, 금권·관권을 총동원하고도 모자라 안기부, 기무사등 사찰기구를 동원해 공직정치, 공안선거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지역당의 한계를 벗고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여 선거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한편,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격변기를 맞아 자신의 생존권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빠르게 준비를 갖추고 출전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원내에서 실시 예정인 투표하고 정외에 민감한 청년학생들은 어떠한 진출과 자주적인 선거참여를 고민하고

있을까? 첫번째, 공명선거운동이다. 지금 시기에 있어서 부정과 협잡을 자행하는 세력은 집권계통이다. 그러므로, 공명선거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집권계통들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대중들의 광범위한 실천과 참여를 이끌어 수 있는 운동이다. 선거라는 공간이 합법적 운동공간을 축소시키고 동시에 공명선거운동을 올바른 운동공간으로 창출할 수 있다. 부정선거사태를 매일 국민 모두가 접수하여 폭동하고 리본달기와 5대 안하가 운동(부정선거 안하, 금품안주 안하, 부장선거는 후보 안하, 관공선거 안하, 공안선거 안하), 부정선거 사례고 발, 유인물 배포등이 있다.

세번째로 학원내 교육재정확보에 있어서 국가가 교육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며 현실권력 담은 교육세를 방위세로 유용하고 특히 젊은층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이끌어 민주후보를 당선

시키는 운동이다. "이번엔 투표 합시다"라던가 "당신의 한 표, 민주세력의 승리, 당신의 정치의 면 여당의 대거당선" 등의 슬로건이 필요하다. 23일 대중적인 귀향투쟁으로 투표참가를 대중적인 분위기로 유도하고 그와 함께, 지방에 못내려 가거나, 거기 가면 학생들을 위해 부재자 신고를 통해 학교에서 직접투표 할 수 있는 방도도 마련되고 있다.

고영재 <정치외교>4) 통해 날마다 폭로하는 사업이 계속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 우리 젊은층의 기권이 낮은 결과를 잘 알고 있다. 투표에서 기권은 시민권의 포기이다. 반민주세력은 시민권의 포기를 선호한다. 정치적 무관심과 참여의 빈곤은 독재권력의 질주를 가져온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이웃과 4천만 민중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20~30대 선거참여를 위한 각계의 방안

이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이 언론의 공개적인 판과-외국보도가 유세장면을 극대화할 수 없는 타락의 극치인 양 사회 전반에 유포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젊은층의 무관심 조장과 투표를 하라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예상한다. 4대 일간지와 3개 방송사를 장악하고 있는 정부는 교묘한 조작기술로 수용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으며 이는 투표율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0일 선거 보도감시 연대 회의가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11일에는 '대학생 부정선거 감시단'이 발족하여 14대 총선에서 공명선거 문화를 이루겠다는 선서를 밝혔으며 아직은 정부의 언론 조작에 크게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다.

여하튼 이번 선거에 61%를 넘는 젊은 층이 '참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여러단체들의 설문지 결과는 지난 광역의회 선거와는 다른 판도의 정치현상을 연상케 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낙관적인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많다 하더라도 선거투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선거행사를 회피하는 기층의 세대들은 급속적으로 양산 될 것이다.

활어수입, 우리는 그동안 뭘 했다. 3월의 바다는 활기가 있다.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남해에서 겨울을 난 각종 물고기가 연안 가까이에 산란을 하기 위해 이동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물에 잘 걸리지 않던 어종마저도 풍성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부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지는 것이다.

다고 생각하는 어민은 아무도 없다.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우리는 이웃 일본으로부터 매년 엄청난 양의 활어(황갈로 쓰이는 산 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보도 이후 수입을 억제케로 했다든가, 미식가들이 '꼭잡이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의를 했다든가, 수산청이 극산 활어의 증산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들은어는 없다. 이를 보도한 언론도 또 한번 '냄비 스타일'의 국민성을 그대로 반영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수산관련 법규에도 민물의 몇몇 어종에 대해서는 체포 금지기간 및 체포 금지체장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는 이도 단속하는 이도 없다. 지난해 겨울 강원도 고기를 잡으며 낚시 관광을 왔던 일본인도 고기를 잡으며 즐기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낚기 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자책을 표현했다.

간경매다. 이쪽 기술에서 저쪽 기술까지 손가락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촘촘한 그물을 걸고, 쳐놓아 그곳에 낚시대를 드리우기가 미안하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그물을 치기는 하지만 강을 틀어막는 (切江) 그물잡은 없으며 우리처럼 작은 고기까지 해치우는 눈이 작은 그들은 아예생선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무계획적 어업정책과 활어수입

서대훈 <외대영문>3) 이번엔 투표 합시다

이 책은 모두 6명의 학자에 의해 쓰여진 6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1984년 미국의 태평양 무역 총액이 대서양 무역 총액을 초과한 이후 상대적으로 대서양 지역은 성장잠재력이 떨어졌으며 태평양 지역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세계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또한 '동북아시아'가 도래하고 있다. 공동번영의 문제는 이념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인류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 책은 Albert O. Hirschman in *Trespassing Economics to Politics and Beyon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의 전반부에 실린 논문들은(제1장~제8장), 발전경제학의 대가로서 널리 알려진 그의 명설에 걸맞게 주로 저개발국의 경제발전과 그 정치적 반향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 후반부의 논문들은(제9장~제14장) 발전 경제학이라기 보다는 정치 경제학의 분야에 속하는 것들이며 때로는 그 빈주조차도 초월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 실려있는 논문들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보다도 훨씬 넓은 의미의 정치경제학 논문들일 것이다.

인류사회 재건연구원編
現代社會의 危機와 思潮
국판/310면/4,000원

國際平和研究所編
Proposal for Peace
국판/543면/13,000원

人類社會再建研究院編
Global Human Family Looking at the 21st Century
국판/564면/18,000원

人類社會再建研究院編
World Citizenship -A Reader-
국판/382면/9,000원

人類社會再建研究院編
World Citizenship -A Reader-
국판/382면/9,000원

人類社會再建研究院編
World Citizenship -A Reader-
국판/382면/9,000원

人類社會再建研究院編
World Citizenship -A Reader-
국판/382면/9,000원

人類社會再建研究院編
World Citizenship -A Reader-
국판/382면/9,000원

人類社會再建研究院編
World Citizenship -A Reader-
국판/382면/9,000원

版局 良書 案内

人類社會再建研究院編
現代社會의 危機와 思潮
국판/310면/4,000원

國際平和研究所編
Proposal for Peace
국판/543면/13,000원

人類社會再建研究院編
Global Human Family Looking at the 21st Century
국판/564면/18,000원

人類社會再建研究院編
World Citizenship -A Reader-
국판/382면/9,000원

人類社會再建研究院編
World Citizenship -A Reader-
국판/382면/9,000원

人類社會再建研究院編
World Citizenship -A Reader-
국판/382면/9,000원

人類社會再建研究院編
World Citizenship -A Reader-
국판/382면/9,000원

人類社會再建研究院編
World Citizenship -A Reader-
국판/382면/9,000원

人類社會再建研究院編
World Citizenship -A Reader-
국판/382면/9,000원